



식량과 비료

2022년
9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 비료 관련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6. 무기질 비료 우수성 홍보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한국 비료 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활용 업무협약

- 수소산업 밸류체인 개발 사업 공동추진 계획

농협경제지주 계열사인 남해화학(대표 하형수)이 최근 서울시 송파구 삼성물산 잠실사옥에서 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 상사부문·LG화학과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원료인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공급망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4사는 청정 수소의 해외 생산부터 국내 도입·활용에 이르는 수소산업 밸류체인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해화학은 자체 보유중인 암모니아 저장 탱크 등 공급 인프라를 활용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고, 안전 규정·기술 검증·개선 제안 등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해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 개발 및 국내 도입 등 사업 모델을 개발 ▲두산에너빌리티는 청정암모니아 분해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 기술 확보 및 청정수소 생산 관련 플랜트 구축 ▲LG화학은 생산된 청정수소의 상용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남해화학 하형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분야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사업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ESG경영을 실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정수소 분야 사업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2022.9.21. 원예산업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조비

○ 동오그룹, 창사 67주년 기념식 개최

- 이병만 회장 “ESG경영 통해 백년기업으로 발전”

- 전 임직원 메타버스에서 디지털·비대면으로 참여

(주)조비와 (주)경농을 포함하는 국내 대표 농산업전문그룹 동오그룹(회장 이병만)이 지난 9월 6일 창사 67주년을 맞아 창사기념식을 개최하고 ESG경영을 통해 백년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사 기념식은 회사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대해 장기근속자상 베스트동오인상 베스트리더상을 시상하고 향후 고객중심의 경영과 ESG 경영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만 동오그룹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고객만족의 경영을 통해 한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고, ESG경영을 통해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식은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디지털 비대면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디지털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시대를 개척한다는 의미를 더하였다. 동오그룹은 조비 경농 글로벌아그로, 탑프레쉬를 포함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산업그룹으로서 조비가 설립된 1955년을 그룹의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조비는 비료업계에서 경농은 작물보호업계 및 종자 스마트팜 부문에서 한국농업을 대표하고 있으며 글로벌아그로는 친환경자재 탑프레쉬는 신선도유지제 전문기업이다.

※ 2022.09.16.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과실 품질 향상에 탁월...조비 ‘채색감미’·‘치요다550’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이어지며 농업 현장에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 관리들이 요구되고 있다. 과실의 크기와 착색, 당도 등 품질 관리에 힘쓰고, 과수의 수세가 평년과 다르다면 여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좋은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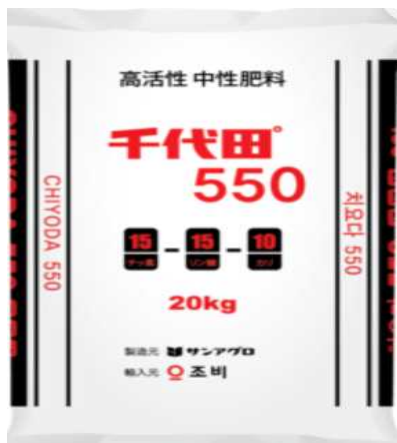
이에 (주)조비는 착색을 돕고 당도를 향상시키는 ‘채색감미’, 생육을 활발하게 하는 ‘치요다550’ 등 과실 품질 향상에 탁월한 제품들을 추천했다.

착색·당도 향상에 탁월한 ‘채색감미’



과실의 착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실 내의 당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분 증가로 인해 안토시아닌과 카로테노이드 등 착색에 관여하는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채색감미에는 고농도의 인산과 칼리가 함유돼 있어 과실 내 전분 분해와 산의 저하에 도움을 주고 당분 전류를 증진시킨다. 또한 강력한 질소 억제효과가 있어 질소의 과다 흡수로 숙기 또는 착색이 지연될 때 사용하면 더욱 좋다. 조비 관계자는 “채색감미를 사용한 과실은 관행에 비해 과실 크기가 크고 과중이 무거우며 착색이 잘 돼 고품질의 과수와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다”며 “또한 관주와 엽면시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작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떤 작물에도 딱! ‘치요다550’



치요다550은 질소, 인산, 황산칼리로 구성된 기능성 비료이며 일반 복합비료와 달리 다공성 구조로 물에 쉽게 녹는다. 질소는 작물이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암모니아태로 질소 이용률이 높아 작물의 전체적인 생육에 도움을 주며 특히 속효적인 비효 효과로 작물 생육 저조기에 적용하면 유리하다. 저온에서도 비료효과를 발휘하며 토양 내 미량요소의 흡수를 빠르게 도와줘 불안정한 기후 속에서도 작물의 안정적인 생육을 돕는다. 치요다550은 일반 살포, 관주와 엽면시비 모두 가능하다.

※ 2022.08.31.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한변에아리커’ 품질 향상, 영농비 절감효과 인기



원예작물 전문 완효성 비료 특허 등록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농가의 안정적인 작물 재배를 돕고 농가 수익 증대를 위해 팜한농에선 9월 추천 제품을 소개했다.

‘한번에아리커’는 원예작물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완효성 비료로, 제품의 차별성 및 성능을 인정받아 지난 7월 ‘원예용 복합비료 조성물’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한번에아리커가 함유한 질산태 질소는 작물의 초기 생육을 돕고, 완효성 비료 성분은 생육 후기까지 용출되면서 꾸준히 양분을 공급해 웃거름 시비 횟수를 줄여준다.

또 황산칼리, 유허, 칼슘도 들어있어 작물의 품질 향상 효과가 우수하다. 웃거름을 자주 주는 작물과 멀칭재배 및 저온기 정식 작물에 사용 시 노동력과 영농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 2022.08.29.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비효증진제함유 기능성비료 "명품유비롱", 비료효과지속 완효성비료 "룡런모든작물"

고품질 마늘, 양파재배를 위한 필수자재, 인피코 기능성·완효성비료!

“통은 더 굵게! 수확은 더 많이! 저장성 더 길게!”

- 1** 기능성, 완효성비료 비효지속, 효과탁월
- 2** 초, 중기 생육향상 월동후 빠른 생육회복
- 3** 특허등록 제품 기술력, 우수성 입증
- 4** 드론시비 가능 단단하고 균일한입도

기능성-효과탁월
완효성-모든작물
종합토양개량

+

공인기관 재배시험결과

〈전용복비+용성인비 수확량〉

전용비료	12%증수	
일반비료		

〈품질향상(항함량)〉

전용비료	13%향상	
일반비료		

마늘·양파재배 전용복비와 용성인비는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구입처 | 전국농협, 원예농협, 풍농대리점
주문상담전화 | 080-022-4646
주식회사 풍농

기능성 비료효과증진제, 완효성, 유기물 함유 명품유비롱(18-9-8+1+0.2,유기물10,기능성,완효성함유)는 초, 중기 양분공급 기능을 강화하여 양분흡수효율 20% 이상 향상, 완효적 양분흡수 효과의 시비절감형 고효율 비료입니다.

밭작물용 완효성비료 룡런모든작물(12-5-5+2+0.2,규산6,석회15,유허5)은 초기활착 뿐만아니라 월동 이후 마늘, 양파재배시 생육촉진, 빠른회복을 위해 완효성양분이 적기에 공급되어 작물 중, 후기 생육을 왕성히하며 다량의 미량요소 및 석회함유로 생리병예방과 저장성 등 상품성 향상과 수량증수에

효과적인 비료입니다.

마늘, 양파 등 월동작물 재배시 엔피코 기능성, 완효성 전용비료와 용성인비(종합토양개량비료, 0-17-0+12, 알카리분40) 함께 사용시 수량은 최대 12% 증수, 품질향상(황함유) 13% 증가로 효과 배가되니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풍농 자료 인용

□ KG케미칼(주)

○ 스마트팜 운영기술·양액비료 개발 ‘맞손’



김재익 KG케미칼 대표(오른쪽)가 김정우 팜스테프 대표와 스마트팜 운영기술과 양액비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주고 있다.

KG케미칼(대표 곽정현·김재익)은 국내 농산물 유통 스타트업 팜스테프(대표 김정우)와 최근 KG 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스마트팜 운영기술, 유통, 양액비료 개발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농업분야의 새로운 기회로 평가받고 있는 스마트팜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팜 농산물 SCM(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팜 전용 양액비료 개발 협력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새로운 농산물 SCM 시스템은 농가와 기업 고객을 연결하는 유통 플랫폼이다. 농산물 유통 단계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생산, 품질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가는 고정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고 기업 고객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는다.

특히 팜스테프가 만들 농산물 유통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팜 농가에 영농기술을 제공한다.

한편 KG케미칼은 1954년 국내 최초 민간 비료회사로 출발해 친환경 유기질비료, 천연 성분 작물 보호제, 미생물 제제, 고효율 하수처리제, 녹조제거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 2022.08.29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국제 원자재 수급 상황 및 현안 수시 대처(농식품부, 농협 등)
- '23년도 비료 원자재 할당관세 신청(농식품부)
- 국회 등 비료관련 요구자료 제출(수시) 및 보도자료 배포(9.23)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농식품부)'23년 예산안 17조 2,785억 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23년 예산은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 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 농가 경영안정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하여 판매(1,000억원, 6개월분)하고, 총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 식량주권 확보

-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채배단지육성(40개소, 31억 원)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15개, 25억 원)과 소비판로 확보(20개소, 15억 원)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인다.

밀은 비축물량(1만 4천 톤, 156억 원 → 2만 톤, 245억 원)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4,032원/kg, 1,068억 원 → 4,489원, 1,234억 원)를 인상하는 한편, 공동 선별비 지원 규모(2만 톤, 11억 원 → 3만 톤, 17억 원)를 확대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증액(1,935억 원 → 2,340억 원)하였다.

※ 2022.8.31. 농식품부 보도자료

□ 윤석열 정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023예산 '반쪽 편성'

- 올해 요소 수입가격 95%, 인산이암모늄 72%, 염화칼륨 100% 상승!
- 비료 가격 비정상적 폭등에 농민 생산비 감당 못할 수준
- 기재부 800억 삭감, 윤석열 정부 추경 이어 농업 무사·농민 홀대 드러내

비료값이 크게 올라 농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반쪽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 예산으로 1,800억 9,900만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상반기 예상 판매물량 64톤에 대한 1,00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요인으로 인한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는 질소, 복합비료, 비료용 황에 대해 수출 쿼터를 적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질소, 칼륨 및 기타 비료에 대한 수출 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조치들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비료 수출제한조치 부과 시 원자재 수입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량이 줄면서 농업 부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비료의 주요 원자재 가격은 최근 10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치솟았다. 1톤당 요소 수입가격은 2021년 이미 전년대비 54%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 445달러에서 올해 7월 868달러로 무려 95%가 추가 상승했다.

인산이암모늄 수입가격도 지난해 69%가 치솟은 뒤 올해도 1톤당 552달러에서 948달러로 72%가 올랐다. 그간 안정적이었던 염화칼륨 수입가격조차 지난해 317달러에서 올해 633달러로 치솟아 가격 상승률이 100%에 달했다. 주요 비료 원자재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불안한 국제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환율 등으로 추후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 당시에도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한 정부 분담률을 30%에서 10%로 줄였다. 이번에도 기재부가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을 보니, 윤석열 정부의 농업과 농민 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지원될 경우 가수요가 발생해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하반기에 비료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상분 80% 보조 중 정부와 지방단체가 각각 30%와 20%를 분담하고 농협이 30%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부와 지자체 분담 각각 10%와 농협 60%로 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농민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해 분담률은 원상복구됐다.

※ 2022. 9. 22. 뉴스워커 기사내용 인용

□ 무기질비료 7월말 농업용 출하량 전년대비 5.6% 줄어

- 국내 농업용 출하량 감소 추세 지속
- 내년도 농가보조사업 확대 및 원료구입자금 지원 강화 필요

지난 2021년초부터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서 농가와 비료생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비료협회는 올해 7월말 기준 무기질비료 농업용 출하량이 84만1천톤(중량기준)으로 전년동기 89만1천톤에 비해 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의 지속 추진과 농가 비료사용 여건 변화 및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비종별 출하 실적을 보면 요소와 완효성·기능성 복합비료는 전년대비 각각

7%, 21% 늘었으나, 맞춤형비료와 원예용비료는 전년대비 각각 17%, 20% 감소했다.

국제원자재가격 비종별 전년대비 90~122% 상승

올해 8월말까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수입한 국제원자재가격은 전년동기 대비해 비종별로 90~122% 수준 상승했다. 관세청 통관가격 기준으로 요소는 올해 8월말 톤당 844달러로 전년 동기 381달러 대비 122% 인상됐으며, 유럽에서 암모니아 생산시설 가동 축소와 동절기 천연가스 수요 증가,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조치 등 수급이 불안정해 내년도까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산이암모늄도 8월말 톤당 956달러로 전년동기 504달러 대비 90% 인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 수입국인 중국이 당대회 개최 후 비료정책 변화와 수출 할당량 시스템 적용으로 내년도 4월까지 수출 전면중단 등이 전망되고 있어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무기질비료 농업용 출하량은 토양검정에 의한 표준시비량 준수 정착과 환경친화적 비료사용 증가 및 완효성·기능성 비료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출하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료협회에서 집계한 회원사의 국내 농업용 출하량을 보면 중량기준으로 2000년 1,842천톤, 2010년 1,140천톤, 2015년 1,184천톤, 2021년 1,046천톤으로 출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사용량도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가격이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내 비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내년도에도 농가보조사업의 확대와 원료 구입자금의 금리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2. 9. 23.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부산물비료 원부자재가격 큰 폭 상승·생산량 감소 이어질까

- 톱밥·피마자박 등 전년대비 12.8~50.7% 상승

- 퇴비 10년 이상 정부지원사업 공급가격 동결...업계 부담 가중

농기자재업체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는 가운데 납품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노학진)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부산물비료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등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재료에 따라 낮게는 12.8%에서 높게는 50.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축분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이하 퇴비)의 경우 주원료 가격은 큰 변동이 없으나 부원료인 톱밥 가격이 전년대비 18.4% 상승했고, 유박류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주원료인 피마자박 가격이 전년대비 50.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자재 등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포장재 12.8%, 래핑필름 15.3%, 파레트 19.2%, 유류대 29.2%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이 동 원부자재 가격 인상율을 토대로 제품가격을 추정한 결과, 퇴비는 20kg당 300~350원 수준, 유기질비료는 20kg당 2500~3000원 수준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 가격 조사 당시 환율 및 전기료 상승요인 등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인상압력이 더 커질 것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22.9.18.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2022년 국정감사, 내달 4일부터 시작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이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는 당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변경, 피감기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시작해 △6일 해양수산부 등(정부세종청사) △7일 농협중앙회 등(서울 서대문, 농협 본사) △11일 농촌진흥청·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축산환경관리원(전주, 농진청사) △13일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 등(부산, 부산항만공사) △14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세종, 세종수목원) △17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나주, 농어촌공사) △18일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 등(서울 송파, 수협 본사)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국회) △21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국회) 일정으로 치러진다.

※ 2022.09.17. 한국농정신문 기사내용 인용

□ (농촌진흥청)2021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

- 평균 소득률 전년 대비 1.3%p 증가, 9월 중순 자료집 발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1년도에 생산된 50개 농산물의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년 대비 단위면적당(10a) 노지채소 소득은 16%, 특용작물은 4% 감소했다. 하지만 식량작물 6%, 시설채소 12%, 노지과수 19%, 시설과수 11%, 화훼 9%가 증가하여 평균 소득률은 48.6%(전년 대비 1.3%p 증가)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조성주 과장은 “농가에서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및 재배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 시장수요를 고려한 적정 재배 면적 확보와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농업인 작목 선택, 경영개선 연구·지도, 농업정책 지원, 영농 손실보상 산정 등에 활용된다. 이번 결과는 9월 중순 ‘2021년 농산물소득자료집’으로 발간되고,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 농업경영 정보시스템(amis.rda.go.kr),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볼 수 있다.

※ 2022.9.12. 농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2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 '22년 벼 재배면적은 727,158ha로 전년 732,477ha보다 0.7% 감소

-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과 쌀 가격하락 등으로 금년도 벼 재배면적 소폭 감소

- '22년 고추 재배면적은 29,770ha로 전년 33,373ha보다 10.8% 감소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전년 대비 가격하락 등으로 금년도 고추 재배면적 감소

※ 2022.8.30.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 '22년 봄감자 생산량은 30만 3,243톤으로 전년의 37만 9,671톤보다 7만 6,428톤(-20.1%) 감소
 - 재배면적: ('21) 14,266ha → ('22) 13,018ha(-8.7%)
 - 10a당 생산량: ('21) 2,661kg → ('22) 2,329kg(-12.5%)
 - 총 생산량: ('21) 379,671톤 → ('22) 303,243톤(-20.1%)

※ 2022.9.7. 통계청 보도자료

□ (환경부)2023년도 예산안...안전환경서비스미래 중심 투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달성,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 전환 뒷받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22년 159개사 → '23년 230개사) 한다.

-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22) 99개사 979억원 → ('23) 140개사 1,388억원
- 스마트 생태공장: ('22) 60개사 606억원 → ('23) 90개사 909억원

※ 2022.8.30. 환경부 보도자료

□ [특별기고] 진정한 식량자급과 쌀가격 보장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

시대를 관통하는 국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다. 이 기초적인 인간의 생존지지 문제가 지역 공동체와 국가의 근간이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이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삶이다. 이것이 충족되고 나서 보다 나은 생활, 보다 나은 생각과 가치추구 등이 의미를 갖는다. 설움 가운데 가장 서러운 것이 바로 배고픔이라고 하지 않는가.

1980년 대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식량자급률제고 목표가 제시되어 왔다. 「2018~2022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는 식량자급률을 2016년 50.9%에서 2022년 올해까지는 55.4%로 4.5%포인트 늘린다고 하였다.

곡물만의 자급률도 같은 기간 23.8%에서 27.3%로 3.5%포인트 증가시키겠다고 하였다. 물량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삼았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었을 것이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의 식량과 곡물 자급률 목표의 달성은 말로만 그칠 공산이 매우 커졌다. 사실 2022년도 자급률의 목표치는 기존의 수치보다 5%포인트 정도 낮게 재조정된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2년 4월에 정부가 내놓은 2020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0.2%이다.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년 동안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을 각각 9.6% 포인트, 7.1%포인트 올려야 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사실 매년 마련한다는 자급률제고방안은 고전이 되었다. 그리 특별할 것도, 특별한 것도 없다. 우량 재배면적을 확보하겠다. 생산성제고를 위해 매진하겠다. 농민들의 소득도 보전하고, 우리농민들은 걱정 없이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고 발전계획을 통해 선언하였다. 올해가 그러한 선언의 결실을 평가해야 하는 마지막 해이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자체가 믿기 어렵다. 식량작물의 대부분은 노지재배를 특성으로 하고 있어서 농지확보는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면적의 3배가 사라졌고 계속 사라지고 있다.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지만 곡물의 대표적인 쌀의 생산성은 지난 10년 10a당 500~510kg에 머물고 있다. 소득이라도 보장되면 모르나 그렇지도 않다. 농가소득은 상대적으로 낮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슨 물가 이야기만 나오면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비자 생활에 주름이 간다느니 하면서 농산물을 주범으로 몰고 있다. 그리고 나서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 농산물을 푼다, 수입물량을 늘린다 난리법석이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라 우리가 먹는 한 끼의 비용이 얼마나 될지. 한 달 통신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자동차 연료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올해 들어 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세계정세 탓을 하면서 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응수해 버린다. 지역농협에서 올해 수매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우성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 신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100일] ‘식량안보·밥상물가’ 두마리 토끼 잡았다”라는 실소를 금치 못할 보도도 하고 있다. 이렇고도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식량 자급을 위해 생산을 더하자고 말할 수 있을런지. 쌀 가격조차 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면서 무슨 식량자급을 농민들의 수고를 통해 이루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여러 조건을 만들고 가꿔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심하고 쌀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강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농민들은 소득이 보장된다면 더 열심히 더 많은 면적에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크기의 농지에서 농사를 극성적으로 지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농민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식량자급률이 상승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면피하려는, 비껴가는 수작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

※ 2022.08.30.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단위: 천톤, 누계)

구분	'19년	'20년	'21년	'21년 7월말	'22년 7월말
생 산 량	2,319	2,142	2,287	1,596	1,396
출 하 량	2,218	2,054	2,319	1,646	1,360

※ 협회 회원사 기준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 및 환율

(단위 : \$/톤, 원)

구 분	2021년		2022년	
	평균	4분기	1분기	2분기
요 소	445	842	851	894
D A P	552	1,004	951	944
염화칼륨	317	401	578	678
환 율 (매매기준율)	1,144	1,183	1,203	1,259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인용

6 무기질비료 우수성 홍보

□ 농업의 궁극적 가치는 식량안보인가?

농업의 가치를 논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식량안보다.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농업의 가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고, 식량자급률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과 밭을 합쳐서 지난 2008년 1,759,000ha이던 국내 경지면적은 '17년도 1,621,000ha로 8%가량 감소했다. 면적으로 따지면 138,000ha로 여의도 면적(8.4km²)의 약 164배의 경지가 지난 10년 사이 사라진 것이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으로 환산해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17년도 8월 기준 국내 인구는 51,812,153명으로 '17년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1인당 돌아가는 땅은 약 94평으로 100평이 안 되는 면적이다. 자급률 차원에서라도 식량안보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농식품부가 집계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잠정치에서 쌀·보리·쌀·밀·옥수수·콩·서류 및 기타 등의 식량자급률은 50.9%로 절반을 겨우 넘기고 있다. 이는 사료용 곡물자급률을 제외한 것으로 사료용 곡물자급률까지 포함할 경우 자급률은 20%대로 떨어진다.

‘현재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24%로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특히 향후 한반도 통일 시 식량안보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국민 1인당을 따져 볼 때 많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리고 2011~2012년 경험했던 것처럼 또 다시 전 세계적으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농산물을 마음대로 수입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안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160배가 넘는 경지가 사라졌는데, 경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의 경제적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식량과 관련된 식량안보 문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8. 11. 9.) 기사내용 인용

7 이달의 주요 인사

□ 농촌진흥청 인사(22.8.30일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고병구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비료과장 현병근

8 회원사 제품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래칭(보리, 밀, 옥수수, 조사료)
- 성분량 : 22-16-5+1+0.1+CAS
- 특성 및 효과
 - 보리, 밀 등 사료작물을 위해 특별 설계
 - 인산, 칼슘유황으로 냉해방지 및 수량증대에 효과
 - 고성분 비료로 시비노동력 절감가능

□ (주)조비



- 제품명 : 단한번OK(원예)
- 성분량 : 13-7-8+1+0.1 (완효성 함유, 뉴트리세이브)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비료가 함유되어 있어 시비 횟수를 줄일 수 있음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뉴트리세이브”가 함유되어 토양 개량효과
 - 뉴트리세이브로 인하여 염류장해를 예방하고 비료 이용율을 향상시킴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식량과 비료

-2022년 9월호-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는 일이 적어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질소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효과가 큼

□ (주)팜한농



- 제품명 : 한번에아리커
- 성분량 : [21]-10-[11]+1+0.1 (황산칼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저온기에도 흡수력이 좋은 속효성의 질산태 질소와 비효가 오래가는 완효성 비료가 혼합되어 있음
 - 작물의 초기 생육을 돕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 추비를 생략할 수 있음
 - 황산칼리, 고토, 붕소, 칼슘, 규산, 유황 함유로 작물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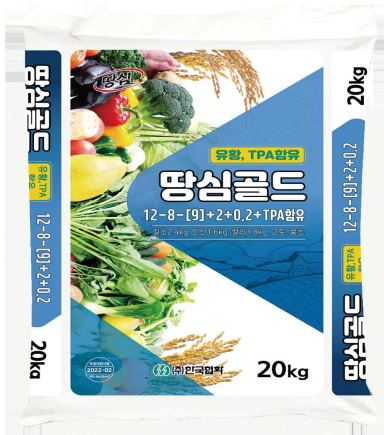
□ (주)풍농



- 제품명 : 썰파원에
- 성분량 : 11-7-(9), 고토1, 붕소0.2, 유황18, 황산칼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월예·과수작물 재배시 필요한 필수 3요소 및 고토, 붕소 및 다량의 유황, 미량요소가 함유된 밀거름비료
 - 마늘, 양파, 생강의 황함유 아미노산함량 증가로 품질개선과 저장성 향상
 - 감자, 고구마의 전분함량을 높이며, 엽채류와 유지작물의 수량 증대효과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망심골드
- 성분량 : 12-8-[9]+2+0.2(TPA, 유황, 미량, 칼슘 함유)
- 특성 및 효과
 - 유황, TPA 함유로 모든 작물에 사용 가능한 비료
 - 황산칼륨 함유로 당도 증가 및 내병성 향상
 - 기능성 물질 함유로 뿌리 발육 촉진

□ (주)세기



- 제품명 : 원샷특호
- 성분량 : 13-8-(10)+2+0.2(황산가리 사용)
- 특성 및 효과
 - 고토, 붕소, 유황, 석회, 규산 등 미량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좋음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맛, 때깔, 저장성을 높여 주어 과실의 신선도를 높여줌

□ KG케미칼(주)



- 제품명 : 미생물발비료
- 성분량 : 12-5-(7)+3+0.3
- 특성 및 효과
 - 기능성 미생물 함유로 염류피해 및 병해충 경감에 도움
 - 부식산 함유로 토양개량효과 증대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작물의 품질(당도,향) 향상

※ 2022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식량과 비료

-2022년 9월호-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